

순천만·퍼플섬 등 전남 8곳... '한국관광 100선' 선정

순천만국가정원 7회 연속 뽑혀...국내 대표 관광지 14곳에 이름 올려 담양 관방제림·장흥 편백숲 우드랜드·광양 청매실농원 올해 첫 선정

순천만국가정원과 담양 죽녹원, 목포해상케이블카, 신안 퍼플섬 등 전남 8개 관광명소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 명소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했다. 올해로 7회째인 '한국관광 100선'은 지난 2012년부터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번씩 선정, 홍보하는 사업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22개소), 강원권(11개소), 충청권(15개소), 광주(2개소), 전남(8개소), 전북(8개소), 경상권(28개소), 제주권(6개소) 등으로 지역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전남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엑스포해양공원 ▲죽녹원&관방제림 ▲섬진강기차마을 ▲목포근대역사공간&목포 해상케이블카 ▲광양 매화마을&청매실농원 ▲퍼플섬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등 8곳이 이름을 올렸다.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의 경우 첫 해부터 7회 연속 선정되면서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국내 대표 관광지 14곳에 이름을 올렸다. 담양 관

방제림과 광양 청매실농원,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는 올해 처음 선정됐다.

여수 엑스포해양공원은 세계 유일의 빅오소, 스카이다이, 아쿠아플라넷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해양레저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다.

아름다운 대나무 숲과 300년 이상 고목이 어우러진 죽녹원&관방제림, 폐선된 전라선을 활용한 전국 유일의 기차를 테마로 한 섬진강 기차마을, 1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관광지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케이블카가 매력적인 목포근대역사공간&목포 해상케이블카 등도 선정됐다.

국내 최대 매화의 군락지로 남도 봄의 정취를 처음 맞이하는 광양 매화마을, 사계절 보라색 꽃이 피는 퍼플섬 등도 가봐야 할 명소로 꼽혔다. 47만 그루의 아름다운 편백이 뿜어내는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도 포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멋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더 많이 선정되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내의 관광객들이 꼭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에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담양 관방제림(官防堤林) 일대 전경. 관방제림은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길 사이 담양천 주변에 쌓은 제방에 심은 나무들로, 2km 가량 되는 숲에 수령 300~400년 된 노목들로 가득하다. 계절마다 다른 느낌의 풍경을 만날 수 있어 어떤 경험을 했느냐, 동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명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헬기 사격 흔적' 전일빌딩245...광주 우수건축자산 1호

전남대 학군단 본부·서강사·동구 인문학당도 등록

광주시는 21일 "5·18민주화운동 역사적 현장인 전일빌딩245를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학군단 본부, 서강사, 동구 인문학당도 우수건축자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 지정과는 달리 활용 가치에 중점을 둔 진흥 개념의 지원제다.

소유주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등록한다.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 전일빌딩245는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돼 당시 전남일보(옛 광주일보)가 사용했으며, 1980년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2011년 광주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건물 내부에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되면서 전일빌딩에서 전일빌딩245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는 도서관과 관광센터, 문화콘텐츠 기업 등이 입주해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2호 전남대 학군단 본부는 독특한 형태와 재료로 건립돼 1950~1960년대 대학 교육시설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3호 서강사는 1960년대 사당 건축물로 광주 지역의 한옥건축 기술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제4호 동구 인문학당은 동명동에 자리한 복합문

화공간으로, 서양-일본-한국의 건축양식이 혼합돼 1950년대 광주의 건축 기술과 다양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 일부를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견해율, 조정 면적, 주차장 확보 등 건축법 일부 규정 완화 혜택 등도 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시작으로 추진 해온 광주시 건축문화 보존정책의 성과 중 하나"라면서 "이번 등록을 시작으로 지역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도로파임' 24시간 집중 관리...교통사고 예방한다

'포트홀 기동보수반' 2월말까지 운영

광주시는 "도로 파임(포트홀) 사고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2월 말까지 특별 기간에 기동보수반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최대 6개 조 18명으로 구성된 포트홀 응급보수 기동반은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활동하며,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포트홀을 신속히 보수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 빙고올대로 등 18개 노선과 포트홀 다발 구간을 재포장하는 등 도로 복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리도로인 왕복 4차로 이상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는 2022년 1만429건, 2023년 2만3448건, 2024년 3만38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은 해빙기인 1~3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포트홀 신고는 광주시 빙고올센터(062-

120),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팀(062-613-6796, 6797)으로 전화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된다.

신재욱 광주종합건설본부장은 "24시간 포트홀 기동보수반을 운영하고 항구복구 공사를 신속 추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도로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설 연휴 장흥 유치~화순 이양 지방도 임시 개통

2월 전체 구간 정식 개통

설을 앞두고 귀성객 편의를 위해 21일 오후 2시부터 장흥 유치-화순 이양 간 지방도 893호 구간이 임시 개통됐다.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19년 간 모두 2346억원을 들여 '유치-이양 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진행중이며 임시 개통 기간 시설물 최종 점검을 거쳐 오는 2월 전체 구간을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 개통 구간은 화순 청풍 교차로에서 국도 29호선과 연결되는 야문 교차로까지 3.33km로, 지난 2016년 장흥 유치 교차로-우산 교

차로 간 4.5km 구간을 부분 개통했고 2019년에는 장흥 우산 교차로-화순 청풍 교차로 간 7.2km 구간에 대한 부분 개통도 이뤄졌다.

총 15.03km 구간에 대한 개선 공사를 거쳐 정식 개통이 이뤄지면 기존 45분 이상 소요되던 이동 시간이 15분으로 단축돼 교통 안정성 확보 및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진행된 공사를 마무리 짓는 만큼 임시 개통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의 최종 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외없는 명절"...광주시, 시민 생활안전 점검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쪽방촌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민 생활안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들랑날랑센터, 쪽빛상담소를 찾아 취약계층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폈다.

고 부시장은 또 동구 계림동 일대 쪽방촌 생활인을 위한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와 쪽빛상담소도 찾

아 배식 봉사하고 이용자와 함께 식사하면서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는 옛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구도심인 대인동-계림동 일대 여인숙과 모텔 쪽방촌에 마련된 쪽방촌 사랑방이다. 이용 인원은 1일 평균 50여 명에 이른다.

쪽빛상담소는 쪽방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취업 연계 교육 등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